

암전문병원 간호사의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 의사결정능력,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정 삼 출¹ · 정 덕 유²

¹ 국립암센터 건강검진센터 간호사, ² 이화여자대학교 건강과학대학 간호과학부 조교수

* 본 논문은 제1저자 정삼출의 석사학위논문 일부 발췌한 것임

* This article is based on a part of the first author's master thesis from Ewha Womans University.

Relationship betwee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Clinical Decision Making and Job Satisfaction of Cancer Center Nurses

Jung, Sam Chul¹ · Jung, Dukyoo²

¹ Staff Nurse National Cancer Center

² Assistant Professor Division of Nursing Science, College of Health Sciences, Ewha Womans University

주요어

비판적사고성향, 임상 의사결정, 직무만족도, 암전문병원, 간호사

Key words

Thinking, Decision making, Job satisfaction, Cancer, Nurses

Correspondence

Jung, Dukyoo
#309, Hellen hall, Ewha Womans University
11-1 Daehyun-dong, seademoon-gu
Seoul, Korea 150-750
Tel: 82-23277-6693
E-mail: dyjung@ewha.ac.kr

투 고 일: 2011년 8월 2일
수 정 일: 2011년 9월 19일
심사완료일: 2011년 10월 20일

Abstract

Purpose: This study was a descriptive correlation study to increase understanding of, and relationships among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clinical decision making and job satisfaction of cancer center nurses. **Method:**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150 nurses working in one cancer center located in Gyeonggi Province. The statistic program, SPSS WIN17.0 was used for data analysis and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 ANOVA, and Pearson correlation. **Results:** Th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f the participant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areas of practice ($F=4.426, p=.005$), and current position ($F=9.346, p=.000$). For clinical decision making of the participant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according to current position ($F=10.667, p=.000$). Furthermore, for job satisfaction,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income ($F=6.779, p=.002$), length of career ($F=2.701, p=.033$) and current position ($F=5.423, p=.005$). There were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for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with clinical decision making, and with job satisfaction. **Conclusions:** The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 that to improve clinical decision making and job satisfaction of cancer center nurses, it is necessary to increas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To make this change, appropriate programs are needed to increase critical thinking and clinical decision making of general cancer center nurses.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008년 한국중앙암등록사업의 통계(등록병원 139개)에 의하면

암 발생이 2007년 165,942명에서 2008년 178,816명으로 전년대비 7.7% 증가된 것으로 보고되며, 국민 평균수명 80세 생존자 기준으로 평생 암에 걸릴 확률은 34%로 3명 중 1명은 암에 걸리는 것으로 보고된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0). 총 사망자 가운데 암으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전체 사망자수의

26.3%를 차지하여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면서, 국가에서는 암 관리법을 제정하고 중앙암등록본부의 운영 및 국립암센터 설립, 암퇴치연구사업 등을 시작하여 국민을 암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6). 이러한 암 질환의 증가추세 속에서 국내 대형병원들은 암 질환 치유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대규모 암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며(Lee & Park, 2006), 국내의 6개 대형 병원의 500병상 이상 암전문병원과 1개의 국립암센터, 6개의 지방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암전문병원이 건립되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6).

이러한 암전문병원에서 암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들은 일반 병동의 간호사와는 달리 대상자의 대부분이 암환자로 암 진단을 받고 말기에 이르러 죽음을 받아들이기까지 적극적이면서 포괄적인 치료 및 중재를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암환자의 위급한 상태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측하고 이를 대처할 수 있는 높은 비판적 사고성향과 임상 의사결정능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Leou, Kim, & Kim, 2005; Park & Yoo, 2005).

Facione과 Facione (1994)에 따르면, 비판적 사고는 성향(disposition)과 기술(skill) 두 영역으로 구성되는 바, 그 중 간호사의 비판적 사고성향은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최선의 목표를 세우고 임상적 판단 및 결정을 하기 위한 전략과 근거를 찾는 지적인 사고과정으로 정의되어진다(Johnson, & Webber, 2005). 비판적 사고성향과 비판적 사고기술이 상호 보완 적으로 보고되나 이 중 비판적 사고성향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뛰어난 비판적 사고 기술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러한 기술을 사용하려는 마음가짐이나 습관적 행동이 없으면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Yoon, 2004). 무엇보다도 간호사는 다양한 임상 의사결정 상황에 처해 있고, 임상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역할을 하도록 기대되는데, 이러한 역할에서 강조되는 중요한 능력 중 하나가 간호사의 비판적 사고성향이라고 할 수 있다(Park & Kwon, 2007). 또한, 비판적 사고성향을 가지고 능력을 발휘할 때 간호사는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해 가는 간호현장에 신속히 대처하고,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임상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켜 간호수행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어(Kang, Kim, & Ryu, 2011) 비판적 사고와 임상 의사결정능력과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사의 직무만족은 간호사 자신의 사기 증진과 동시에 환자에게 보다 나은 양질이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Adams & Bond, 2000). 간호사는 환자, 가족, 그리고 사회 전반에 걸쳐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며, 병원 전체 인력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병원 내 가장 규모가 큰 전문의료집단으로 (Jeong,

Kim, & Kim, 2008) 병원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직무만족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Golbasi, Kelleci, & Dogan, 2008). 특히 간호사의 비판적 사고성향은 직무만족도의 주요 변수 중 하나로, Kim (2007)에 따르면, 간호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사의 업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무경험과 전문 지식뿐만 아니라 비판적사고가 필요하다. 또한, 비판적 사고성향은 새로운 지식의 습득과 복잡한 인관관계, 열악한 근무조건, 다양한 간호수혜자의 간호 요구 등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간호사의 직무만족도 향상에 중요한 요소로,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은 간호사일수록 직무만족도도 높았다(Sung & Eum, 2009).

그동안 비판적 사고 성향은 간호사 대상으로 보다는 간호 교육의 결과 평가를 위해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되어진 경향이 있고, 부족하나마 간호사의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 의사결정능력, 직무만족도의 관계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주로 대상이 일반 종합 병원 간호사에 집중되어왔다(Kang, Kim, & Ryu, 2011; Sung & Eum, 2009). 하지만, 암전문병원의 신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암전문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에 본 연구자는 암전문병원 간호사의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 의사결정능력, 직무만족도를 측정하고, 이들 변인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암전문병원 간호사의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 의사결정능력, 직무만족도 정도를 파악한다.
2. 암전문병원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 의사결정능력, 직무만족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3. 암전문병원 간호사의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 의사결정능력, 직무만족도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암전문병원 간호사의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 의사결정능력, 직무만족도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K도에 소재한 516병상의 K병원에 근무하는 임상간호사 중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150명

을 임의 표본추출방법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K병원은 암 관리법(법률 제10465호)과 국립암센터시행령(법률 제6149호)에 따라 2000년부터 암전문병원으로 설립 운영되었다.

3. 연구 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일반적 특성 8문항, 비판적 사고성향 27문항, 임상 의사결정능력 40문항, 직무만족도 20문항 등을 포함한 구조화된 설문지로 구성되었다.

1) 비판적 사고 성향

본 연구에서는 비판적 사고성향측정에 대해 Yoon (2004)이 개발한 비판적 사고성향 측정도구를 사용하였으며, 개발자의 동의를 얻었다. 본 도구는 7개의 하위영역이며, '지적열정/호기심', '신중성', '자신감', '체계성', '자작공정성', '건전한 회의성', '객관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적 열정/호기심'은 다양한 질문이나 문제에 대한 해답 탐색, 사건의 원인과 설명을 구하기 위해 왜, 언제, 누가,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등에 관한 질문을 제기하는 자세다. '신중성'은 타당하고 충분한 근거가 확보될 때까지 판단을 보류하고 끈기 있게 정확한 결과를 추구하는 자세이며, '자신감'은 자신의 추론과정을 믿으며 비판적 사고를 통해 타당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자세를, '체계성'은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려 하는 성향을 의미한다. 또한, '지적 공정성'은 열린 마음으로 진실을 추구하며 자신과 타인의 의견에 대해 공정하게 평가하려는 태도이며, '건전한 회의성'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실에 대해 의심하는 태도로 자신과 타인의 오류가능성을 인정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특성으로, '객관성'은 타당한 근거를 토대로 결론을 도출하며 증거와 이유가 충분할 때 입장을 정하는 성향을 의미한다 (Yoon, 2004). 이는 '전혀 그렇지 않다'가 1점,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Cronbach's α 는 .84이었으며, 본 연구의 도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87이었다.

2) 임상 의사결정능력

본 연구에서는 임상 의사결정능력에 대해 Jenkins (1985)가 개발한 The Clinical Decision Making in Nursing Scale (CDMNS)를 Baek (2005)이 번역,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4가지 하위영역이며, '결론에 대한 평가와 재평가', '가치와 목표에 대한 검토', '정보에 대한 조사와 새로운 정보에 대한 일치화', '대안과 선택에 대한 조사'로 구성되어 있다. '결론에 대한 평가와 재평가'는 대안 선택에 있어서 결과를 예측, 위험과

이익을 평가하는 것, '가치와 목표에 대한 검토'는 임상 의사결정 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지에 대한 것, '정보에 대한 조사와 새로운 정보에 대한 일치화'는 임상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 정보와 임상 의사결정을 일치화 시키는 것, '대안과 선택에 대한 조사'는 의사결정을 위해 여러 대안을 찾아보고 임상 의사결정을 할 사안을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Jenkins, 1985). 이는 '전혀 그렇지 않다'가 1점,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 의사결정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Cronbach's α 는 .83이며, 선행연구 Baek (2005)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7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81이었다.

3) 직무 만족도

본 연구에서는 직무만족도에 대해 Stamps 등 (1978)이 개발하고 Han (1996)이 번역하고 Park (1997)이 수정 보완한 Attitude Scale to Measure Occupational Satisfaction of Hospital Nurses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7가지 하위영역이며, '보수', '전문적 위치', '간호사의 관계', '행정', '자율성', '업무요구', '상호작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수'는 현재 봉급에 만족하는지와 타병원에 비해 높은지에 대한 것으로, '전문적 위치'는 현재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본인의 진로 결정에 대해 스스로 만족하고 자랑스럽게 생각 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간호사-의사 관계'는 간호사의 사간의 협력이 이루어지는지 여부이다. '행정'은 간호 행정자들이 일반 간호사와 의논하고 병원 행정자들과 간호 업무간의 충돌이나 차이가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자율성'은 간호사가 간호업무 시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업무요구'는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업무가 많은지에 대한 것이며, '상호작용'은 병원 내 간호사 이외의 의료팀과 협동 여부에 관한 것이다(Park, 1997).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가 1점,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1이었고, 선행연구 Han(1996)와 Park(1997) 연구에서 신뢰도는 각각 Cronbach's α .77과 .7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0이었다.

4. 자료수집 기간 및 방법

자료수집 기간은 2010년 2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연구자가 직접 K도 소재 K병원 간호부를 방문하여 연구 목적과 설문지의 내용을 설명하고 병원 IRB승인을 받아 동의를 얻고 해당 부서 수간호사의 허락을 받은 후 임상간호사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고 100% 수거하였다.

5. 자료 분석

본 연구는 설문지의 각 문항을 점수화 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통계처리는 SPSS/WIN 통계프로그램 17.0을 활용하였으며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제시하였다.
- 2)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 의사결정능력, 직무만족도 정도는 평균과 표준 편차로 구하였다.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 의사결정능력, 직무만족도 정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 One-way ANOVA를 실시하고, 결과가 유의한 경우 사후검정을 위해 Scheffe test를 실시하였다.
- 4)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 의사결정능력, 직무만족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로 분석하였다.

6. 연구대상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서는 암전문병원의 IRB 승인(임위1801-7)을 받아 실시하였으며, 대상자에게 자료수집 시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언제든지 참여를 철회할 수 있으며, 수집한 자료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과 연구대상자의 익명성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통해 동의를 구함으로써 연구자의 윤리적 측면을 보호하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결혼상태, 평균급여, 최종학력, 총 근무경력, 근무부서, 직위로 분류하여 조사하였고,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대상자는 여성이 96.7%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평균 연령은 29.3세로 미혼이 104명(69.3%)이었으며, 평균 급여는 연봉 3000-4000만원 그룹이 77명(51.3%)으로 가장 많았다. 최종학력은 전문대 졸업 46명(30.7%), 학사 44명(29.31%)순이었다. 간호사 총 근무경력 평균 73.45개월(6.1년)로 최저 2개월에서 274개월(22.8년)로 조사되었고, 근무부서는 병동 69명(46.0%), 대상자의 대부분이 일반간호사 135명(90.0%)이었다.

2.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 의사결정능력, 직무만족도의 정도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articipants (N=150)

Categories		n	%	Mean±SD
Gender	Female	145	96.7	
	Male	5	3.3	
Age(yr)	-25	25	16.7	
	26-30	72	48.0	29.30±3.90
	31-	53	35.3	
Marital status	Married	46	30.7	
	Unmarried	104	69.3	
Income (10,000won/year)	Below 3000	42	28.0	
	3000-4000	77	51.3	
	Upper 4000	31	20.7	
Education background	Diploma	46	30.7	
	In RN to BSN	14	9.3	
	RN to BSN	24	16.0	
	BSN	44	29.3	
	MSN and higher	22	14.7	
Career lengths (months)	-35	29	19.3	
	36-59	33	22.0	
	60-83	27	18.0	73.45±45.25
	84-119	30	20.0	
	120-	31	20.7	
Areas of practice	General unit	69	46.0	
	ICU	15	10.0	
	OR	15	10.0	
	Other	51	34.0	
Current Position	Staff nurse	135	90.0	
	Charge nurse	10	6.7	
	Head nurse	5	3.3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 의사결정능력, 직무만족도 정도는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암전문병원 간호사의 비판적 사고성향은 평균평점 97.13점을 보였고, 비판적 사고성향의 하위영역에 있어서는, '지적열정/호기심' (3.65 ± 0.47), '신중성' (3.46 ± 0.57), '자신감' (3.57 ± 0.48), '체계성' (3.44 ± 0.54), '직적공정성' (3.84 ± 0.32), '건전한 회의성' (3.37 ± 0.54), '객관성' (3.88 ± 0.47)으로 점수가 나타났다.

암전문병원 간호사의 임상 의사결정능력은 평균평점 136.89점으로 나타났다. 임상 의사결정능력의 하위영역에 있어서는, '가치와 목표에 대한 검토' (3.53 ± 0.35), '결론에 대한 평가와 재평가' (3.46 ± 0.41), '정보에 대한 조사와 새로운 정보에 대한 일치화' (3.38 ± 0.39), '대안과 선택에 대한 조사' (3.15 ± 0.42)순으로 점수가 나타났다.

암전문병원 간호사의 직무만족도는 평균평점 63점으로 직무만족도의 하위영역에 있어서는, '상호작용' (3.49 ± 0.62), '업무요구' (3.35 ± 0.69), '자율성' (3.26 ± 0.62), '전문적 위치' (3.25 ± 0.75), '간호사의사관계' (3.17 ± 0.71), '행정' (2.70 ± 0.67), '보수' (2.59 ± 0.78)

(Table 2)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Clinical Decision Making, and Job Satisfaction of the Study Participants (N=150)*

Subscales	Mean±SD	Possible rang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¹	3.60±0.32	1-5
Intellectual eagerness/curiosity	3.65±0.47	
Prudence	3.46±0.57	
Self-confidence	3.57±0.48	
Systematicity	3.44±0.54	
Intellectual integrity	3.84±0.32	
Healthy skepticism	3.37±0.54	
Objectivity	3.88±0.47	
Clinical decision making ²	3.42±0.25	1-5
Evaluation and re-evaluation of consequences	3.46±0.41	
Canvassing of objectives & values	3.53±0.35	
Search for information	3.38±0.39	
Search for alternatives or options	3.31±0.42	
Job satisfaction ³	3.12±0.39	1-5
Salary	2.59±0.78	
Professional status	3.25±0.75	
Nurse-doctor relationship	3.17±0.71	
Administration	2.70±0.67	
Autonomy	3.26±0.62	
Task requirement	3.35±0.69	
Interaction	3.49±0.62	

1. Total mean (±SD) = 97.13±8.71

2. Total mean (±SD) = 136.89±10.06

3. Total mean (±SD) = 63.00±7.56

순으로 점수가 나타났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 의사결정능력, 직무만족도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은 근무부서(F=4.426, p=.005), 직위(F=9.346,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임상 의사결정능력은 직위(F=10.667,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도는 평균 급여(F=6.779, p=.002), 총 근무경력(F=2.701, p=.033), 직위(F=5.423, p=.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4.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 의사결정능력, 직무만족도의 관계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 의사결정능력, 직무만족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과 같다.

비판적 사고성향은 임상 의사결정능력(r=.500, p<.001) 및 직무만족도(r=.125, p=.030)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임상 의사결정능력은 직무만족도(r=.310, p<.001)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Table 4) *Correlations betwee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Clinical Decision Making, and Job Satisfaction (N=150)*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Clinical decision making		Job satisfaction	
	r	p	r	p	r	p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1					
Clinical decision making	.500	.000	1			
Job satisfaction	.125	.030	.310	.000	1	

논 의

암전문병원 간호사의 비판적 사고성향은 평균평점 97.13점을 보였는데, 이는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비판적 사고성향을 측정한 Yoon (2008)의 연구에서 비판적 사고성향 점수 96.55점수보다 높고,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Park & Kwon, 2007)에서 간호사의 비판적 사고성향 점수 99.14점수보다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나 암전문병원 간호사의 비판적 사고성향의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 암전문병원 간호사의 비판적 사고성향의 하위영역에 있어서는, '객관성' 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건전한 회의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비판적 사고성향 측정 도구 중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이용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 지지 않아 다양한 비교가 어려워 제한점이 있으나, Yoon (2004)의 비판적 사고성향 측정도구로 일반 간호사 대상으로 측정한 선행연구 (Park & Kwon, 2007)의 결과에서 '신중성', '객관성', '지적열정/호기심' 순으로 나타난 것과 상이하여, 암전문병원 간호사는 일반 병원의 간호사보다 '객관성' 이 높아 객관성의 정의인 타당한 근거를 토대로 결론을 도출하려고 하며 증거와 이유가 충분할 때 입장을 정하는 성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암전문병원 간호사의 임상 의사결정능력은 평균평점 136.89점을 보였는데, 이는 간호사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임상 의사결정능력간의 관계를 살펴본 Park과 Kwon (2007) 연구의 임상 의사결정능력 점수 134.32보다 높았으며, 영국 간호사를 대상으로

(Table 3)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Clinical Decision Making, Job Satisfaction according to Demographic Data (N=150)

Variables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Clinical decision making				Job satisfaction			
		Mean±SD	t/F	p	Scheffe	Mean±SD	t/F	p	Scheffe	Mean±SD	t/F	p	Scheffe
Gender	Female	3,60±0,33	,272	,786		3,42±0,25	,561	,576		3,13±0,39	1,759	,081	
	Male	3,56±0,16				3,36±0,13				2,82±0,39			
Age(yr)	-25	3,56±0,26	,281	,839		3,38±0,28	,467	,706		3,22±0,40	1,456	,229	
	26-30	3,59±0,30				3,42±0,26				3,09±0,37			
	31-	3,63±0,38				3,44±0,22				3,07±0,39			
Marital status	Married	3,66±0,35	1,484	,140		3,44±0,22	,636	,526		3,10±0,41	-,327	,744	
	Unmarried	3,57±0,31				3,41±0,26				3,12±0,38			
Income (10,000won/yr)	below 3000	3,66±0,25	1,833	,163		3,42±0,25	,778	,461		2,95±0,38	6,779	,002	b,c>a
	3000-4000	3,55±0,34				3,41±0,24				3,15±0,37			
	Upper 4000	3,64±0,34				3,47±0,27				3,25±0,38			
Education background	Diploma	3,62±0,27	,676	,610		3,37±0,26	,876	,480		3,02±0,42	1,713	,150	
	In RN to BSN	3,66±0,26				3,44±0,24				3,05±0,48			
	RN to BSN	3,64±0,27				3,49±0,24				3,23±0,31			
	BSN	3,58±0,36				3,44±0,23				3,13±0,37			
	Masterand higher	3,51±0,43				3,41±0,29				3,20±0,36			
Career lengths (months)	-35	3,53±0,30	1,508	,203		3,35±0,27	,967	,428		3,24±0,40	2,701	,033	
	36-59	3,56±0,32				3,42±0,27				3,12±0,33			
	60-83	3,67±0,26				3,43±0,25				2,93±0,36			
	84-119	3,69±0,32				3,48±0,23				3,09±0,45			
	120-	3,57±0,38				3,42±0,24				3,19±0,36			
Areas of practice	General unit ^a	3,56±0,30	4,426	,005	d>c	3,40±0,27	,620	,603		3,14±0,37	,429	,733	
	ICU ^b	3,61±0,20				3,43±0,25				3,17±0,40			
	OR ^c	3,40±0,48				3,38±0,25				3,04±0,42			
	Other ^{ad}	3,71±0,29				3,46±0,22				3,09±0,41			
Current Position	Staff nurse ^a	3,56±0,30	9,346	,000	b>a	3,39±0,24	10,667	,000	b,c>a	3,08±0,39	5,423	,005	
	Charge nurse ^b	3,96±0,36				3,59±0,25				3,37±0,28			
	Head nurse ^c	3,84±0,11				3,83±0,16				3,50±0,23			

* Others=out-patient unit, health care center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Girot (2000)의 임상 의사결정능력 점수 145.83점보다 낮았다. 임상 의사결정능력의 하위영역에 있어서는, '가치와 목표에 대한 검토', '결론에 대한 평가와 재평가', '정보에 대한 조사와 새로운 정보에 대한 일치화', '대안과 선택에 대한 조사' 순으로 점수가 나타났는데, 이는 간호사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임상 의사결정능력과의 관계를 본 Park과 Kwon (2007)의 '결론에 대한 평가와 재평가', '정보에 대한 조사와 새로운 정보에 대한 일치화'가 높고, '대안과 선택에 대한 조사'는 낮게 나온 결과와 차이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암전문병원 간호사들은 임상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가치관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능력은 다른 영역에 비해 뛰어난 반면, 일반 간호사는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위험과 이익을 평가하여 내리는 능력이 다른 영역보다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암전문병원 간호사나 일반 간호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로 임상 의사결정을 위해 여러 대안을 체계적으로 찾아보는 능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간호사들이 대안을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이러한 능력을 개발하는 교육적 뒷받침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암전문병원 간호사의 직무만족도는 평균평점 63점으로 동일한 직무만족도 측정도구를 사용한 보훈병원 간호사의 직무만족도 (Park et al., 2009)의 66점보다 낮고, 간호 관리자의 직무만족도 (Ha & Choi, 2002)의 57.4점보다 높았다. 직무만족도의 하위영역에 있어서는, '상호작용'이 가장 높고, '보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 (Sung & Eum, 2009)의 하위영역별 점수에서 '보수'가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인 결과와 일치한다. '보수'에서 공통적으로 직무만족도가 낮은 결과를 볼 때, 병원 당국과 간호 관리자들은 간호사의 직무만족을 높이기 위해 적정수준의 보수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직위에 따라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 의사결정능력, 직무만족도의 차이를 보였다. 특히 사후분석결과 주임간호사나 수간호사가 일반간호사와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

다. 이는 경력이 쌓이고, 조직에서 인정받는 직급이 되면 하나의 병동의 관리자로서 역할을 해야 하므로 폭넓게 사고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해온 결과가 반영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기존 연구에 따르면 임상경력이 많을수록 비판적 사고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결과에 근거하여(Lim, 2006) 주임간호사 또는 수간호사의 많은 임상경험이 일반 간호사에 비해 높은 비판적 사고성향의 결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고려된다. 또한,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상자의 임상 의사결정능력은 유일하게 직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임상 의사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Park & Kwon, 2007; Bong, So, & You, 2009)에서 수간호사군의 임상 의사결정능력 점수가 책임간호사나 일반간호사보다 높게 나온 결과와 유사하다. 이는 직위가 높아질수록 관리자로서의 책임 (Park & Kwon, 2007)과 간호업무의 숙련성도 올라감에 (Sung & Eom, 2009) 따라 임상 의사결정능력도 향상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 참여한 주임간호사와 수간호사의 수가 일반간호사에 비해 상당히 적어 제한점이 있으므로 추후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근무 부서에 따라 비판적 사고성향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근무부서에 따라 비판적 사고성향의 유의한 차이는 Sung과 Eum (2009)의 연구에서와 유사한 결과다. 본 연구에서는 기타 및 특수부서로 분류된 외래 및 건강검진센터의 간호사의 비판적 사고 성향 점수가 수술실 간호사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Sung 과 Eum (2009)에서는 산·소아과 병동간호사가 기타 병동간호사 보다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근무부서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의 차이를 일반화를 위해 근무부서의 범주를 동일화하여 추후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평균급여에 따라 대상자의 직무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평균급여'인 보수는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Cowin, 2002; Ko & Chung, 2004) '보수'가 향상될수록 직무만족도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는 보수가 업무의 가중과 스트레스에 대한 보상기전으로 작용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Cowin, 2002; Ko & Chung, 2004). 총 근무경력에 따른 직무만족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나 사후 검정결과 그룹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은 임상 의사결정능력 및 직무만족도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임상 의사결정능력은 직무만족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국외의 연구에서는 Usy와 Meyer (2005)는 비판적 사고성향은 임상실무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이용되지 못한다고 하였고, Hicks, Merrit와 Elstein (2003)이 비판적 사고성향은 임상 의사결정능력과 관

련이 없다는 보고가 있으나, 이는 최근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인 간호사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임상 의사결정능력과의 연구 (Park & Kwon, 2007; Sung & Eum, 2009)의 결과에서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비판적 사고성향과 임상 의사결정능력의 정적인 관계를 근거로 안전문병원 간호사의 임상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비판적 사고성향 증진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비판적 사고성향과 임상 의사결정능력 및 직무만족도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를 통해 안전문병원 간호사의 임상 의사결정능력 및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비판적 사고성향을 위한 전략 수립과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지원마련이 필요함 시사한다.

결론

본 연구는 안전문병원 간호사의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 의사결정능력, 직무만족도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연구 대상자는 K도에 소재한 516병상의 K병원에 근무하는 안전문병원 간호사로 본 연구에 동의한 150명이다.

연구의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은 근무부서, 직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임상 의사결정능력은 직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대상자의 직무만족도는 평균급여, 총 근무경력, 직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2. 비판적 사고성향은 임상 의사결정능력 및 직무만족도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임상 의사결정능력은 직무만족도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안전문병원 간호사의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 의사결정능력, 직무만족도 간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에서 안전문병원 간호사의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 의사결정능력, 직무만족도의 상관관계가 유의하였으므로, 임상 의사결정능력 및 직무만족도의 향상을 위해 간호사의 비판적 사고성향의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안전문병원 간호사의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 의사결정능력, 직무만족도가 직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므로, 안전문병원 일반 간호사의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 의사결정능력, 직무만족도의 향상을 위한 전략개발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REFERENCE

- Adams, A., & Bond, S. (2000). Hospital nurses's job satisfaction,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Journal of Nursing Management*, 32, 536-543.
- Back, M. K. (2005). *Relationship between level of autonomy and clinical decision making in nursing scale of E. T. nurse*.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Bong, Y., So, H., & You, H. (2009).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self-efficacy and job satisfaction in nurse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15(3), 425-433.
- Cowin, L. S. (2002). The effect of nurses's job satisfaction on retention. *Journal of Nursing Administration*, 32(5), 283-291.
- Facione, N. C., & Facione, P. A. (1994). Externalizing the critical thinking in knowledge development and clinical judgment. *Nursing Outlook*, 44(3), 129-136.
- Giro, E. A. (2000). Graduate nurses: critical thinkers or better decision maker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3(2), 288-297.
- Golbasi, Z., Kelleci, M., & Dogan, S. (2008). Relationships between coping strategies,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job satisfaction in a sample of hospital nurses: cross-sectional questionnaire survey.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45(12), 1800-1806.
- Ha, N., & Choi, J. (2002). The relationship among leadership styles of nurse managers,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urnover inten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2(6), 812-822.
- Han, C. (1996). *A study on role conception and job satisfaction of clinical nurses*. Unpublished thesis. Kyung-Hee University, Seoul.
- Hicks, F. D., Merritt, S. L., & Elstein, A. S. (2003). Critical thinking and clinical decision making in critical care nursing: a pilot study. *Heart Lung*, 32(3), 169-180.
- Jenkins, H. M. (1985). Improving clinical decision making in nursing.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24(6), 242-243.
- Jeong, J. H., Kim, J. S., & Kim K. H. (2008). The risk factors influencing turnover intention of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4(1), 35-44.
- Johnson, B. M., & Webber, P. B. (2005).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asoning in nursing*, (2nd ed.). Philadelphia: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 Kang, K., Kim, E., & Ryu, S. (2011). Factors influencing clinical competence for general hospital nurses, *The Korea Contents Society*, 11(1), 284-293.
- Kim, J. Y. (2007).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job satisfaction in clinical nurs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Seoul.
- Ko, S. H., & Chung, B. Y. (2004). Nursing professionalism and job satisfaction of nurses in general hospital. *Journal Korean Academy Nurse Administration*, 10(3), 335-341.
- Lee, S., & Park, J. (2006). A study on the spatial organization of major area in cancer hospitals : focused on the cases of the metropolitan area.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Healthcare Architecture*, 12(1), 7-15.
- Lim, E. J. (2006).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ritical thinking skill in clinical nurses.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18(1), 31-40.
- Leou, C., Kim, K., & Kim, J. (2005). Factors associated with burnout of nurses working for cancer patients. *The Korean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8(1), 45-51.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0). Registered cancer reports. Retrieved June 10, 2011 from http://www.mw.go.kr/fron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BOARD_ID=140&BOARD_FLAG=00&CONT_SEQ=247149&page=1.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6). The second stage of cancer conquest plan. Retrieved June 10, 2011 from http://www.mw.go.kr/front/jb/sjb0501vw.jsp?PAR_MENU_ID=03&MENU_ID=030501&BOARD_ID=320&BOARD_FLAG=00&CONT_SEQ=178337&page=1
- Park, H. (1997). Transformational and transactional leadership styles of the nurse administrators and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nurs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7(1), 228-241.
- Park, M., & Yoo, Y. (2005). Burden, job satisfaction, and quality of life of nurses caring for cancer patients. *The Korean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8(1), 8-17.
- Park, M. O., Park, J., Ryu, S., Kang, M., Kim, K., Min, S., & Kim, H. (2009). The influence of health promotion life style, perception of head nurse's leadership and job satisfaction on the work performance among nurses of some neterans hospital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15(1), 45-53.
- Park, S., & Kwon, I. (2007). Factors influencing nurses` clinical decision making-focusing o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7(6), 863-871.
- Stamps P. L., Piedmont, E. B., Slavitt, D. B., & Hasse, A. M. (1978). Measurement of work satisfaction among health profession. *Medical Care*, 16(4), 337-352.
- Sung, M., Eum, O. (2009). Relationships betwee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fessional nursing competence and job satisfaction in clinical nurse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15(1), 26-36.
- Usy, B. Y., & Meyer, S. M. (2005). Critical thinking of students nurses during clinical accompaniment. *Curationis*, 28(3), 11-19.
- Yoon, J. (2004).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for the measurement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In nurs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atholic University. Seoul.
- Yoon, J. (2008). A study on th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f nursing studies- focusing on a school applying integrated nursing curriculum.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4(2), 159-166.